

라틀리프 귀화 사실상 확정…2월 월드컵예선 출전 ‘햇살’

배임 무혐의 결론 법무부 심의 통과 예상
개명 시간 필요…이번엔 라틀리프로 출전

정민성 프로농구

라카르도 라틀리프(29·삼성)의 특별귀화가 속도를 내게 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는 지난해부터 프로 농구를 주관하고 있는 KBL, 소속팀 삼성과 의견을 나누면서 라틀리프의 특별귀화를 추진해왔다.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 승인만 남은 상

태였기에 당초 지난해 11월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전에 ‘한국인 라틀리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라틀리프의 배임 혐의를 거론한 청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귀화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KBL과 삼성은 서류를 준비해 무혐의를 입증해왔다. 최근 검찰은 수사 결과 라틀리프의 배임죄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라틀리프의 귀화는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는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태다. KBA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국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심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라틀리프가 2월 23일(홍콩 전)과 26일(뉴질랜드 전) 잠실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수 있느냐 여부다. KBA는 2월 5일까지 선수명단을 FIBA에 제출해야 한다.

KBA 측은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한국 호적 등록, 여권발급 등의 서류 절차가 남아 있다. 심의통과 이후 법무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엔트리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화와 KBL은 법무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법무부에서도 협조적이다. 엔트리 제출, 경기일자까지 잘 알고 있다. 빨리 서류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다만 개명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절차를 거쳐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일단 라카르도 라틀리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라틀리프



후반기 첫 경기 서울 팀들의 맞대결에서 SK가 연장 혈투 끝에 웃었다.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라운드 서울 삼성-서울 SK의 دير비매치에서 SK의 헤인즈가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최준용-헤인즈 63점 합작…SK ‘연장혈투’ 신승

〈32점〉

〈31점〉

SK, 라틀리프 복귀한 삼성에 7점차 승리
버튼 버저비터 동부, KGC 꺾고 선두 고수

서울 SK가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기고 선두권 추격에 가속도를 냈다.

SK는 16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라운드에서 서울 삼성을 97-90으로 누르고 올스타전 휴식이 이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동시에 2위 전주 KCC와의 격차를 0.5경기차로 줄여 선두권 대열에 바짝 다가갔다. 반면 7위 삼성은 최근 4연패에 빠지며 6강 싸움에서 한 발 멀어졌다. 이날 패배로 6위 인천 전자랜드와는 4경기차가 됐다.

초반 기선은 삼성이 잡았다. 김태술~문태

영~마키스 커밍스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가동해 리드를 벌려나갔다. 이날 부상 복귀전을 치른 라카르도 라틀리프가 곧바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짐을 고루 나눴다. 경기 초반 커밍스가 연속 골밑슛을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이후 문태영과 김태술, 최원호의 외곽포를 앞세워 1쿼터를 26-19로 앞섰다.

SK도 반격에 나섰다. 2쿼터 4분여를 남기고 애런 헤인즈가 연속 득점을 하며 기어코 균형을 맞췄다. 전반을 41-41로 마친 양 팀은 이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SK가 앞서가면 삼성이 뒤를 쫓는 형국이 계속됐다.

승패는 4쿼터 막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외곽포 대결 속에서도 가려지지 않았다. 결국 82-82로 돌입한 연장에선 SK 빅맨들의 집중력이

빛났다. 최준용이 7점을 집어넣으며 맹활약했고, 헤인즈와 김민수 역시 확실하게 골밑슛을 성공시켜 승패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준용(32점)과 헤인즈(31점)가 63점을 합작한 것이 결정타였다.

한편 SK는 이날 신인 포워드 안영준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전력에 힘이 붙었다. 10일 팀 훈련 도중 동료와 충돌해 해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안영준은 예정보다 일찍 회복세를 보여 이날 경기 선발로 출전했다. SK로선 주전가드 김선형의 발목 부상 복귀 시점이 2월 말로 늦춰진 터라 안영준의 조기 복귀는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같은 날 1위 원주 DB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다론티 버틀의 4쿼터 버저비터 3점슛을 앞세워 안양 KGC를 92-89로 꺾었다. 최근 6연승을 달리며 2위 KCC를 2경기차로 따돌렸다.

장철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스스로 진화하는 박혜진, 우리팀의 심장”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이 극찬하는 이유

“공·수 최고 기량에도 늘 부족함 채찍질
노력 만큼은 양동근에도 뒤지지않을 것”



우리은행 박혜진(28)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여자프로농구 최고의 선수다.

정확한 외곽슛과 돌파력, 2대2 플레이에 노련미가 가미되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여유까지 생겼다. 공격 못지않게 수비도 리그 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22경기에 출전해 평균 38분42초를 뛰면서 13.9점·4.8리바운드·5.5어시스트·1.5스틸로 전천후 활약을 자랑하고 있다. 15일 KEB하나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는 21점을 기록하면서 상대 주포 김이슬을 단 6점으로 묶는 대활약을 했다.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는 박혜진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은행 위성우(47) 감독은 박혜진을 향한 신뢰가 팽창해 높다. 그는 “아직도 가끔 혼내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다.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에서도 상대 주포들을 막기 때문에 안쓰럽고 미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극복해낸다. 우리 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선수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혜진의 최대 강점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데 있다.

이미 기량 면에서는 국내 최고 자리에 있지만, 오프시즌에 스쿼트레이닝을 받는 등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선수다.

박혜진은 “슛은 일정한 폼으로 쏘야 하는데 잘 안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던지는 각도를 바꾸는 버릇이 있다. 이 부분을 감독님이 잘 짚어 주시는 편이다. 시간에 쫓길 때도 여유가 없다. 공격제한 시간을 2, 3초 남기고 급하게 슛을 던지면 감독님이 ‘2, 3초도 내가 슛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가 여유를 가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는데, 영상으로 다시 보면 아직도 급하



공수 모든 면에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박혜진을 향한 위성우 감독의 사랑은 지극하다. 특히 끊임없는 자기발전 의지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포츠동아DB

다. 여유를 더 가져야 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위 감독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선수다. 아직도 박혜진이 더 발전하고 나아질 부분이 있다. 남자농구 양동근(현대모비스)과 같은 선수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노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이토 스포츠토토

5점차 박빙 승부 예상 밀워키-마이애미전 뿐

농구토토 승5패 3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17·18일 NBA 10경기·KBL 4경기 대상
원주 DB, 고양 오리온에 승리 70% 몰표

국내 농구팬들은 2017~18시즌 농구토토 승5패 3회차에서 5점차 이내의 접전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17일과 18일에 열리는 미국프로농구(NBA) 10경기과 국내남자프로농구(KBL) 4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3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5점차의 박빙승부 예상은 단 1경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차에서 유일하게 5점차의 승부를 예상한 경기는 9번으로 선정된 밀워키-마이애미 경기였다. 5점 승부가 투표율 36.98%로 가장 높았고, 원정팀 마이애미가 34.17%였다. 홈팀 밀워키는 28.84%의 지지를 받았다.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양 팀은 동부에서 나쁘지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상승세다. 지

난 해 12월30일부터 14일까지 7연승을 기록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8승2패의 높은 승률이다. 가장 최근 밀워키와 맞붙어 인방에서 97-79 대승을 거둔 기록도 있다.

다만 마이애미의 원정 5연전 가운데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이동시간에 따른 체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차 대상 경기 가운데 팀에 투표율이 쏠린 경기는 시카고 불스(홈)-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원정) 경기다. 두 팀은 원정팀 승리(75.46%), 5점 승부(15.19%), 홈팀 승리(9.35%)로 집계됐다. 농구팬들은 대부분 원정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NBA 및 서부에서 1위(16일 기준)를 달리는 골든스테이트의 전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에서는 홈팀 골든스테이트가 시카고 불스를 약 50점차로 대승을 거뒀다. 골든스테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기록 중이다.

반면 이번 시즌 동부 컨퍼런스에서 12위를 기록 중인 시카고 불스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홈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NBA에서 두 번째로 투표율이 집중된 경기는 6경기 토론토 랩터스(홈)-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경기다. 홈팀 토론토 랩터스의 승리에 68.95%가 몰려 원정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보다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는 양 팀은 2016~17시즌 상대전적에서도 토론토 랩터스가 3승 1패로 앞섰다. 이 점 때문에 농구팬들은 토론토 랩터스의 우세를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토(동부 2위)와 디트로이트(동부 6위)는 지난 시즌 상대전적에서 2번이나 5점차 이내의 승부를 보여, 철저한 분석에 따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BL 원주 DB(홈)-고양 오리온(원정) 경기에서는 원주DB의 승리에 70.20%가 몰렸다. 현재 3할 승률도 채 거두지 못하는 고양 오리온보다 몰운 감각으로 리그 1위를 달리는 원주DB에게 밝은 전망을 내린 것이다.

최근 원주 DB는 이상범 감독의 지휘하에 전력 개편에 따른 선수들의 시너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부상에 따른 이변이 없다면 원주 DB의 승리가 무난하게 예상되는 결과다. NBA와 KBL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농구토토 승5패 3회차 게임은 17일 오후 6시50분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참가자 43% “원정팀 KB스타즈, 삼성생명에 승리”

농구토토 W매치 14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17일 열리는 2017~18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삼성생명-KB스타즈 경기에서 KB스타즈의 승리를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17일 오후 7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생명-KB스타즈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14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2.46%가 원정팀 KB스타즈의 승리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월 토토 건전화 이벤트 1만 3000건 조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온라인 발매 사이트 벤토맨이 진행하고 있는 1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건강하고 건전한 토토생활 실천하기!’가 16일 현재 조회수 1만3000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벤토맨이 현재 운영하는 건전화 프로그램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 구매 캠페인’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는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 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